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피의 자원 쟁탈전'

흙의 전쟁

도현신 지음

범박하게 말한다면 세계의 역사는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땅은 일반적으로 영토를 말한다. 땅 속에는 석유를 비롯해 금, 다이아몬드 등 자원이 묻혀 있다. 천연자원은 한 나라의 부의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비단 흙은 광물과 같은 자원만을 품고 있지는 않다. 인간의 생존 요소인 식량 자원도 흙에서 일구어진다. 향후 식량 자원은 인류의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흙속에서 시작했고 흙과 시작했으며 흙 위에서 벌어진 역사를 다룬 '흙의 전쟁'은 흙에서 비롯한 세계사를 아우른다. 저자는 '가루 전쟁', '바이러스 전쟁', '신의 전쟁' 등 전쟁 시리즈를 써온 도현신 작가. 인문 역사 분야 다양한 책을 펴낸 도 작가는 이번에는 '흙'을 모티브로 인간의 역사를 훑어본다.

몽골인의 조상 흉노족의 군주 모둔 선우는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근본이니 어찌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중국사람들은 흉노족을 멸시했지만, 흉노족을 다스린 모둔 선우는 땅의 소중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땅은 매우 귀한 자원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한 개인의 영욕을 가능하게도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성시하는 델포이 신전에 켈트족이 침입한 것은 황금 때문이었다. 신전에 보관된 금덩어리를 빼앗고자 하는 야욕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로마제국은 경제가 약화되자 금광이 있는 다키아왕국을 침략



세계 역사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역사였다. 사진은 석유 시추 장면.

한다. 자국에서 산출되는 금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그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

석유 때문에 벌어진 전쟁도 적지 않다. 저자는 제1차 대전은 영국이 독일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에서 벌인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은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1991년과 2003년 발발한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의 원인도 석유 때문이었다. 2011년 서방 국가들이 연합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리비아의 풍부한 석유 매장지를 차지하려는 야심"과 맞닿아 있다.

흔히 자원이라고 하면 땅 속에 묻힌 황금과 같은 보석을 일컫는다. 그러나 자원이라 해서 모두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 배설물이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새똥이 모여 만들어진 구아노가 바로 그것이다. 비료 역할 등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

페루는 1839년부터 40년간 1200만 톤 구아노를 유럽 각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팔다보니 구아노가 다 떨어졌고, 페루의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 개발도 소홀히 한 탓에 페루 경제는 약화일로로 걸었다.

시에라리온과 같은 내전지역에서 불법으로 생산된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를 피로 물들였다. 전쟁이나 테러의 자금줄로 악용된 탓이었다. 15세기 이탈리아를 휩쓴 '중세 유럽의 흑토류' 백반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후 유럽과 오스만제국 역사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한다.

고대 염료인 티리온 퍼플을 비롯해 구리와 초석 등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의 경쟁과 전쟁은 결국 흙의 전쟁에 다름아니었다. 이렇듯 저자는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흙의 전쟁'이라 정의한다. <이디북스·1만7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참 눈치 없는 언어=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말을 듣는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계속 마음에 남는 말도 있고 급기야는 한밤중에 이불킥을 날리기도 한다. 저자 안현진은 말의 이면에 숨은 뜻과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 메시지 발신자와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 수신자 간의 관계를 저자 자신이 직접 모은 48가지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월요일의꿈·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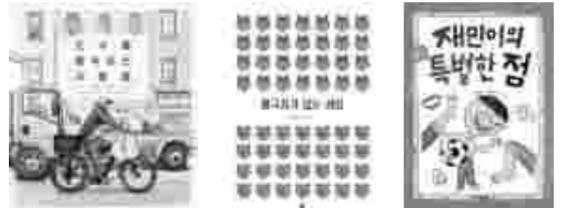
▲같이 읽자, 교육법=실천교육교과서 도입을 설립하고 6년간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성식 교사가 그간의 분투기를 '교육법'이라는 큰 줄기로 엮어냈다. 소싯적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청춘처럼 들었던 저자는 그것이 '법 모르고 산 사람'을 향한 자유라는 것을, 교육법을 공부하며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에듀넷·2만5000원>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동물들에 관하여=스웨덴 수의사 리나 구스타브손은 일터인 도축장에서 마주친 잔혹한 상황을 낱말이 일기로 적어 나간다. 운반 과정에서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매를 맞이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수의사로서 꼼꼼히 살펴보면 녀석들이, 도축 공정을 거치며 고기가 되는 과정을 꼼짝없이 지켜보아야 했던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갈매나무·1만5000원>



▲mRNA 혁명, 세계를 구한 백신=우리가 흔히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라고 하는 mRNA 백신이 무엇인지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비상 시기에 순식간에 결집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밑바탕이 된 여러 과학자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낱말이 살펴본다. 특히 헝가리 출신의 카탈린 카리코라는 한 여성 과학자의 40년 연구 족적을 촘촘히 기록한다. <이상북스·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칼데콧 수상 작가 브라이언 플로카가 코로나19 팬데믹 속 미국 뉴욕시 일상을 지탱해주는 도시 노동자들을 담았다. 배달 노동자, 버스과 지하철 운전자들, 환경미화원, 소방수와 경찰, 의사와 간호사 등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중한 노고와 탐방을 이 녹아냈다. 코로나19가 바꾼 삶은 서정적인 글과 세밀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애국자가 없는 세상='강아지 똥', '몽실언니'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와 동화를 남긴 권정생 작가가 2000년 발표된 시 '애국자가 없는 세상'을 그림책으로 펴냈다. 이 시는 민족, 국가, 애국심으로

부터 해방된 사람만이 꽃과 나무와 풀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림 작가 김규정이 이 시를 읽고 그린 시 그림책이다. <개똥이·1만5000원>

▲재민이의 아주 특별한 점='목소리 교환소', '잔소리카락을 뽑아라' 등으로 독자들과 만나온 김경미 작가의 새 동화책, 콩알만 한 '점'에서 시작된 재능 찾기 소동을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점'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톨툴거리면서도 성실하게 재민이를 감시하는 강두와 그 복잡한 심정은 아랑곳없이 본다 모습대로 당차게 반응하는 재민이의 모습은 연신 웃음을 자아낸다. <주니어김영사·1만1500원>

한국 첫 여성 대법관이 삶의 굽이굽이에서 만난 책

시절의 독서-김영란의 명작 읽기

김영란 지음

한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이자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김영란이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독서의 경로를 담은 책을 펴냈다.

'시절의 독서-김영란의 명작 읽기'는 '평생 유일하게 지독해온 것이 책읽기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로 살아온 그가 자신이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왔는지 차분히 써내려간 책이다.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를 통해 이미 책읽기에 대한 글을 썼던 작가는 이번엔 삶의 굽이굽이에서 만난 8명의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에 등장하는 명작들은 어린 시절 만났던 책과 저자 들로부터 시작한다. 책을 놀이도구로 삼았던 시절, 온



가족들이 함께 읽었던 '작은 아씨들'의 루리자 메이 울렛은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네 자매가 함께 상상했던 세계를 소설 속 판타지 월드로 구축했으며 '제인에어', '폭풍의 언덕'의 브론테 자매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그려내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작품을 썼다.

저자는 작가로서의 성공과 가족을 꾸려나가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느꼈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도리스 레싱 등 변방에 존재했던 작가들에게도 우정어린 편지를 쓴다. 여성의 수가 극소수였던 법률가 사회에서 일하던 시절 만난 도리스 레싱은 문학사에서 페미니즘의 전사처럼 여겼지만 실은 어머니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던 아이였다고 분석하면서 '모성'이라는 신화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도리스의 좌절과 안간힘을 '생존자의 회고록', '금색공작' 등의 소설 속에서 면밀히 읽어낸다.

또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와 '중언들'은 권력이 스스로 신격화하여 비인격화되고 관료주의화하는 세계를 단순명료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세계에서 가장 힘이 없는 계층인 여성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놀라운

상상력으로 보여준 작품이라 분석한다.

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의 세계를 헤매는 현대인들의 삶'까지 연결시켜 사유해보아야만 제대로 읽히는 '말란 쿤데라,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낸다. 카프카의 '성'을 관료주의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에 대한 암울한 예측이라고 해석하면서, 법해석학을 수행하며 살아온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털어 놓는다.

그밖에 삶을 바깥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트 보니것의 소설들을 소개하고, 은퇴 무렵에 이르니 자신의 삶에 대한 은유로 가득 찬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준 안데르센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책에서 세상과 싸울 무기를 구하기보다는 살아 가면서 부딪치는 세상을 납득해보려는 도구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저자는 "책읽기가 때로는 사유의 샘을 깨우는 폭포수일 수도 있지만, 삶의 각 페이지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한다. <창비·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